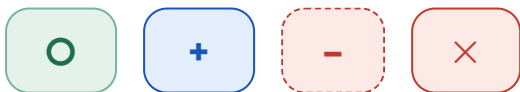


고등 내신 · 이론 + 실전

네 원소로 완성하는 내신 어법

규칙 수십 개를 외우지 않는다.

네 원소 $\bigcirc + - \times \text{—}$ 자리($+/ -$)와 꼴($\bigcirc/\times$), 두 질문으로 판정한다.

고1 ~ 고2 내신 대비

정답과 해설(별책) 포함 · 실제 학교기출 유형 기반

네 원소로 완성하는 내신 어법
고등 내신 어법 · 이론 + 실전 (본책 · 별책)

초판 1쇄 발행 2026년 7월 9일

초판 2쇄 발행 2026년 7월 24일

지은이 정성봉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출판등록 356-2025-000052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010-2782-0745

전자우편 code_of_english@naver.com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ISBN 979-11-220305-1-8 (53740)

© 지은이, 2026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펴낸곳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본문 예문은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어법 오류 유형을 반영해 새로 집필한 것입니다.

목차

모든 밑줄은 네 기호로 판정한다 —  정상 ·  과다 ·  부족 ·  꼴틀림. **자리편 (+ / -)**은 성분의 양, **꼴편 (O / X)**은 품사·형태. 챕터 배치와 문항 수는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된 어법 오류의 빈도를 조사해 그 비중을 맞췄다.

총론

CH 0O×+- 단일 판별법    	1
---	---

PART 1 · 자리편 (+ / -) — 성분의 양

1-1관계사 · 선행사와 완전/불완전 (what·which·that)  	8
1-2관계부사 · 완전절 앞의 자리  	16
1-3정동사 vs 준동사 · 동사 자리(결손/중복)  	23
1-4접속사·명사절 · that/what/의문사/whether의 자리  	31

PART 2 · 꼴편 (O / X) — 품사·형태

2-1분사(능동·수동) / 형용사 vs 부사  	38
2-2수일치 · 주어의 핵과 동사 	46
2-3태 · 능동/수동 · 자동사/타동사 	53
2-4시제·조동사 꼴 / 대명사 수·격 	59
2-5병렬·품사 선택 · 접속사가 있는 두 자리 	66

PART 3 · 혼합 실전 (O×+- 통합)

3-1두 축 섞어 태깅 → 판정 → 수정 (서술형 대비)	72
3-2누적 실전 세트 (기출 유형별 · 5지선다/개수/수정)	77

문제은행 · 어법 판정 드릴 (1,170문장 · 1단 필기)

각 오류 유형이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조사해 문항 수를 정했다. 자주 나오는 자리에 더 많이 훈련한다.

1-1관계사 201문장	80
1-2관계부사 21문장	99
1-3정동사 vs 준동사 91문장	102
1-4접속사·명사절 12문장	111
2-1분사 / 형용사·부사 354문장	113
2-2수일치 172문장	146
2-3태 30문장	162
2-4시제·조동사·대명사 91문장	165
2-5병렬·품사 선택 29문장	174
3-1통합 태깅 99문장	177
3-2실전 심화 70문장	187

읽는 법 본책과 별책은 번호가 **완전 대응**한다 — 좌표 **1-1** ⑤ **B-8**. 쪽번호는 이론편에 이어 **문제은행까지 연속**이며, 별책도 같은 방식이다.

머리말

어법은 **아는 시험**이 아니라 **판정하는 시험**이다. 밑줄 하나를 보고 "이건 관계사 규칙, 저건 수일치 규칙" 하고 서랍을 뒤지는 순간 이미 늦는다. 시험지는 어떤 규칙인지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규칙을 늘리는 대신 **질문을 줄였다**. 모든 밑줄에 똑같은 두 걸음을 던진다. 먼저 **성분을 센다** — 정문보다 남는가(+), 모자라는가(-)? 자리가 맞으면 **꼴을 본다** — 이 자리가 부르는 형태인가(O), 어긋나는가(X)? 이 두 걸음이 관계사·분사·수일치·태·시제를 한 손동작으로 묶는다.

네 기호 **O + - X**는 채점 기호가 아니라 **진단 기호**다. 무엇이 틀렸는지뿐 아니라 **어느 쪽으로 고칠지**까지 알려 준다. +는 성분이 남는다는 뜻, -는 모자란다는 뜻, X는 양은 맞고 꼴이 어긋났다는 뜻이다. 기호가 곧 진단이다.

문항은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온 어법 오류 유형을 모아 **어떤 자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세어 보고, 그 비중대로 배치했다. 많이 나오는 자리에 많이, 드문 자리에 적게 — 공부한 양이 곧 시험장에서 만나는 양이 되도록 했다. 문장은 시험 지문의 호흡에 맞춰 길고 촘촘하게 새로 썼다.

외울 것은 규칙표가 아니라 **순서**다 — 자리 먼저, 꼴 나중. 그 순서가 손에 붙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표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자리편

정문 대비 **성분의 양**을 센다. 남으면 + (과다), 모자라면 - (부족). 관계사·정동사·명사절 등 "무엇이 빠지거나 남았나"를 다룬다.

꼴편

자리가 맞을 때 **품사·형태**를 본다. 어긋나면 ×, 여기까지 걸리는 것이 없으면 ○. 분사·형용사/부사·수일치·태·시제·병렬 등 "제 꼴인가"를 다룬다.

- 1) 척추부터.** 총론(CHAPTER 0)에서 네 기호와 2단계 루틴(자리→꼴)을 먼저 심는다. 이후 모든 챕터가 같은 판정을 반복한다.
- 2) 자주 나오는 자리에 더 많이.** 챕터 순서와 **문항 수**는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된 어법 오류의 빈도를 조사해 그 비중에 맞췄다. 분사·수일치·관계사처럼 자주 나오는 자리에 훈련량을 몰아 준다.
- 3) 같은 코너 흐름.** 각 챕터는 **개념 → + / - · ○ / × → 시범 루틴 → 태깅 연습(A·B·C) → 유형 적용 → 검수·요약**으로 흐른다. 마지막 PART 3에서 전 범위를 섞어 실전으로 마무리한다.
- 4) 문제은행 1,170문장.** 이론편 뒤에 판정 드릴을 붙였다. 한 문장에 밑줄 하나, 기호 하나 — 손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한다.
- 5) 별책 완전 대응.** 정답과 해설(별책)은 본책과 번호가 **1:1**이다. 좌표(예 1-1 ⑤ B-8)로 바로 찾고, 틀린 문항의 챕터를 표시해 약점 축을 복습한다.

일러두기 — 네 기호

기호	뜻	판별 질문
○	정상	고칠 것이 없는가? — 성분도 맞고 꼴도 맞다
+	과다	무엇을 빼야 하는가? — 정문보다 성분이 남는다
-	부족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 있어야 할 성분이 없다
×	꼴틀림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가? — 자리는 맞는데 형태·선택이 어긋난다

판정 순서는 고정이다.

① 성분을 센다 → 남으면 +, 모자라면 - (여기서 끝)

② 성분이 맞으면 형태·선택을 본다 → 맞으면 ○, 틀리면 ×[세부태그]

셋을 가르는 기준 — 성분의 양

성분이 남는다	+	the man I met him — 목적어가 두 번 · 대개 지워서 고친다
성분이 없다	-	the resource which the plan depends → on which — 전치사 결손 · 대개 넣어서 고친다
양은 맞고 꼴만 틀리다	×	whom → who led — 같은 자리에서 형태만 교체

관계사가 **없는 것**과 **형태가 틀린 것**은 다르다. whom → who는 관계사가 빠진 게 아니라 격이 어긋난 것이므로 ×[격]이고, which → on which는 depend가 on을 **문법상 필수**로 요구해 뒤 절이 불완전하므로 -다. 다만 뒤 절이 **완전**하면 같은 which → in which라도 which가 성분으로 남아 +다.

손동작은 판정을 **확인하는 버릇**이지 판정 자체가 아니다. 한 낱말을 **바꿔서** 고치는데도 +인 자리가 있다 — the year which the style changed → when. 뒤 절이 완전해 대명사 which가 **성분으로 남기** 때문이다. 기준은 늘 **성분의 양**이다.

네 기호가 나란한 넷이 아니다. **오류를 가리키는 것은 +·-·×** 셋이고, **○**는 셋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최종 판정**이다. 그래서 ○는 자리편에도 꼴편에도 나온다.

일러두기 — ✕ 세부 태그

✕는 혼자 쓰지 않는다. 자리가 맞는데 꼴이 틀렸다면, 무엇이 어긋났는지까지 적는다 — ✕[격], ✕[능/수]처럼.

태그	어긋난 것	예
관계사 계열		
✕[격]	주격/목적격 혼동	whom led → who
✕[소유격]	소유격이 필요한 자리	who habits → whose
✕[선행사]	선행사 종류·유무에 안 맞는 관계사	the nurse which → who
✕[전치사]	전치사 뒤 관계사 형태·전치사 선택	in that → in which
형태·품사 계열		
✕[형/부]	형용사·부사 자리 혼동 (보어·목적격보어·수식)	react quick → quickly
✕[능/수]	분사의 능동(-ing)·수동(p.p.) 방향	a boring child → a bored child (아이는 지루함을 느끼는 쪽 · cf. falling leaves ○)
✕[수일치]	주어의 핵과 동사의 수	the effects ... was → were
✕[어순]	간접의문문 등 배열	what was it like → what it was like
동사 계열		
✕[태]	능동/수동 (be+p.p. 여부)	was added → added
✕[자/타]	자동사·타동사 구분, 자동사 수동 불가	was happened → happened
✕[동사형]	활용·준동사 꼴 (원형/과거/p.p./to-V/-ing)	enjoys to practice → practicing
✕[시제]	시제 선택	has finished ... ago → finished
✕[조동사]	조동사 뒤 원형, 조동사+have p.p.	must enter ... last night → must have entered
✕[가정법]	제안·요구 동사 뒤 (should)+원형, 가정법 시제	insisted that it was paid → be paid
기타		
✕[대명사]	수·격·재귀·비교 대용(that of / those of)	two paintings ... it → they
✕[어휘]	뜻·품사가 다른 유사어·파생형	afford → affordable

일러두기 — 표기 약속

역할 태그 — 문장 성분을 색으로 구분한다.

(S) 주어 **(V)** 동사 **(O)** 목적어 **(C)** 보어 **(M)** 수식어

판별 사슬 — 각 챕터 상단의 따는 판정 순서를 보여 준다: 성분 세기 + / - → 꼴 보기 ○ / × → 판정 → 수정. 진행 중인 단계에 강조 표시가 붙는다.

답 쓰는 법 — 밑줄 옆 답란 → _____ 에 **기호**와 **수정형**을 함께 적는다. 정답·해설은 **별책**에서 같은 번호로 찾는다.

고칠 때의 세 가지 약속 —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는 이유다.

① 고치는 것은 **밑줄 친 요소 하나**다. 문장의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② 밑줄이 **시제·상 오류가 아닌 한**, 원문의 시제와 상(相)은 그대로 둔다. was added → added는 되지만 was adding은 안 된다. (밑줄 자체가 **시제·조동사·가정법** 오류일 때는 그 시제·상을 바로잡는 것이 곧 수정이다 — has finished ... ago → finished.)

③ 고쳐 쓴 형태에 **be·have가 들어갈 수는 있다** — 수동형·완료형·진행형을 되살리는 데 필요하면 그것이 수정형의 일부다. 다만 동사가 통째로 빠져 채워 넣어야 할 때(-)는 **문맥 시제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채운다. 원문에 없던 완료·진행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표준 어법에서 두 형태가 모두 맞는 자리(help + 원형 / to-V, 지각동사 뒤 원형 / -ing 등)는 **별책 해설에 괄호로 함께** 적어 두었다. 둘 중 무엇을 써도 맞다.

본문 예문은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어법 오류 유형과 지문의 문장 호흡을 반영해 **새로 집필한 것**이다.

총론 · 이 책의 척추

CHAPTER 0

○×+-

자리 · 꼴

규칙을 외우지 말고, 네 기호로 판정하라

판별 사슬 ① 성분 세기 + / - → ② 꼴 보기 ○ / × → 판정 → 수정(정문)

밑줄마다 네 기호 중 하나를 붙인다 · 판정 예 the man I met (+) him · tastes (×) deliciously



정상 이상 없음



과다 성분 남음



부족 성분 모자람



꼴틀림 형태·선택 어긋남

① 두 질문, 하나의 기준 (개념)

어법 밑줄을 볼 때 우리는 규칙표를 뒤지지 않는다. **딱 두 가지**만 순서대로 묻는다. 첫째는 **자리(성분의 양)**, 둘째는 **꼴(품사·형태)**.

**자리 — 성분의 양**정문과 견줘 **성분**을 센다. 방향은 둘뿐 —- 있어야 할 게 **없다**(결손) · + 없어도 될 게 **더 있다**(잉여).

부호가 방향(어느 쪽으로 고칠지)까지 알려 준다.

**꼴 — 품사·형태**자리가 맞다면 **꼴**을 본다. 맞으면 O, 어긋나면 X.

형용사·부사 자리를 혼동했거나 능·수동이 뒤바뀐 분사가 X.

X는 혼자 쓰지 않는다 — 옆에 이유 태그를 붙인다(④).

"남는가(+) 모자라나(-)?" → 아니면 "이 꼴이 맞나(O) 틀리나(X)?"

포인트

순서 고정 — ① 성분부터 세서 (+) / (-). 자리 문제면 여기서 끝. ② 자리가 맞을 때만 꼴을 봐 (O) / (X).

📌 자리 · 성분을 세면 - 부족 / + 과다 자리편 예고

타동사는 목적어(명사)를 데려와야 한다. 그 자리가 비면 -, 없어도 될 성분이 없으면 +.

그녀는 그 사실을 부인했다.

She denied ? ← denied 뒤 목적어 없음 = - 부족

She denied that she knew. 목적어절을 채움

관계사절도 성분 세기다. 관계대명사는 뒤 절의 빈 성분 하나를 대신한다 — 비었는데 안 채우면 -, 다 찾는데 또 없으면 +.

(×) the man **I met him** met의 목적어를 him이 채워 절이 완전 → 관계사가 대신할 자리가 없는데 him이 잉여 +

(○) the man **(whom) I met** him을 지우면 정문

(×) the house **which** he lives he lives는 성분이 다 찬 완전절 → 명사 노릇을 하는 which가 남는다 +

(○) the house **where** he lives where는 부사라 성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자리 신호 타동사·전치사 뒤 **명사 자리가 빔**·불완전절인데 관계사 없음 = - / 완전절 앞 관계대명사·같은 성분이 두 번 = +.
자세히는 **자리편(PART 1)**.

❶ **꼴·자리가 맞으면** ○ / × **꼴편 예고**

자리가 맞다면 남은 시비는 꼴 하나다. 두 질문 — **품사**(형용사냐 부사냐)와 **방향**(주체가 하나 당하나).

S V C(형용사 자리)

The soup tastes deliciously 감각동사 보어 자리에 부사 = × [형/부]

The soup tastes delicious 형용사 = ○

분사는 **방향**으로 가른다 — 주체가 **하면 v-ing(능동)**, 당하면 **p.p.(수동)**.

자리가 요구	○ 정상	× 꼴 틀림
보어·명사수식(형용사)	keep it clean	keep it cleanly [형/부]
능동(스스로 함)	the exciting news	the excited news [능/수]
수동(당함)	the excited fans	the exciting fans [능/수]
주어 수일치	the results are	the results is [수일치]

꼴 판정 자리가 형용사면 형용사(○) · 능·수동은 **주체가 하나 당하나**로 v-ing/p.p.(○) · 어긋나면 ×. 자세히는 **꼴편 (PART 2)**.

㉠ 셋을 가르는 기준 · 성분의 양 이 먼저다 핵심

④ · ⑤ · ⑥를 가르는 것은 **성분의 양**이다. 남으면 +, 모자라면 -, 양이 맞고 꿀만 어긋나면 ×. 고치는 손동작은 그 판정을 **확인하는 버릇**이다.

성분이 남는다	+	the man I met him — 목적어가 두 번 · 대개 지워서 고친다
성분이 없다	-	the resource which the plan depends → on which — 전치사 결손 · 대개 넣어서 고친다
양은 맞고 꿀만 어긋난다	×	whom led → who led — 같은 자리에서 형태만 교체

가장 흔한 혼동 관계사가 **없는 것**과 **형태가 틀린 것**은 다르다. whom → who는 관계사가 빠진 게 아니라 격이 어긋난 것이니 ×[격]이고, which → on which는 depend가 on을 **문법상 필수**로 요구해 뒤 절이 불완전하니 -다(뒤 절이 완전하면 같은 in which라도 which가 남아 +).

손동작에 속지 마라 한 낱말을 **바꿔서** 고치는데도 ④인 자리가 있다 — the year **which** the style changed → **when**. 뒤 절이 완전해서 대명사 which가 **성분으로 남기** 때문이다. 기준은 손이 아니라 **성분의 양**이다.

두 걸음만 기억하라 ① 성분을 센다 → 남으면 ④, 모자라면 ⑤ ② 양이 맞으면 꿀을 본다 → ⑥ 또는 ⑦. 어떤 단원에서도 이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의 자리 네 기호가 나란한 넷이 아니다. 오류를 가리키는 것은 셋이다 — ④ · ⑤ · ⑦. ⑥는 셋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뜻, 곧 자리도 꿀도 이상 없다는 **최종 판정**이다. 그래서 ○는 자리편에도 꿀편에도 똑같이 나온다.

◎-보충 × 세부 태그 · 무엇이 어긋났는지까지 적는다 **사전**

×는 혼자 쓰지 않는다. 자리가 맞는데 꼴이 틀렸다면, 무엇이 어긋났는지까지 적는다 — ×[격], ×[능/수]처럼. 아래 16종이 이 책 전체에서 쓰는 태그의 전부다.

태그	어긋난 것	예
관계사 계열		
×[격]	주격/목적격 혼동	whom led → who
×[소유격]	소유격이 필요한 자리	who habits → whose
×[선행사]	선행사 종류·유무에 안 맞는 관계사	the nurse which → who
×[전치사]	전치사 뒤 관계사 형태·전치사 선택	in that → in which
형태·품사 계열		
×[형/부]	형용사·부사 자리 혼동	react quick → quickly
×[능/수]	분사의 능동(-ing)·수동(p.p.) 방향	a bored child
×[수일치]	주어의 핵과 동사의 수	the effects ... was → were
×[어순]	간접의문문 등 배열	what was it like → what it was like
동사 계열		
×[태]	능동/수동 (be+p.p. 여부)	was added → added
×[자/타]	자동사·타동사 구분, 자동사 수동 불가	was happened → happened
×[동사형]	활용·준동사 꼴	enjoys to practice → practicing
×[시제]	시제 선택	has finished ... ago → finished
×[조동사]	조동사 뒤 원형, 조동사+have p.p.	must enter → must have entered
×[가정법]	제안·요구 동사 뒤 (should)+원형	insisted ... was paid → be paid
기타		
×[대명사]	수·격·재귀·비교 대응	two paintings ... it → they
×[어휘]	뜻·품사가 다른 유사어·파생형	afford → affordable

㉔ 판별 루틴 시범 · 밑줄 하나를 2스텝으로 루틴

시범 1 —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

He is the person I trust him.

STEP 1 자리 trust의 목적어를 him이 이미 채웠다. 관계사가 대신할 빈자리가 없는데 him이 남는다 = + 과다. **자리에**서 종료(끝은 안 봄).

수정 him 삭제 → the person (whom) I trust

시범 2 — 자리에서 모자라는 경우

The old lighthouse standing alone on the northern cliff.

STEP 1 자리 standing은 준동사라 **동사 자리를 못 채운다**. 이 문장에는 정동사가 하나도 없다 = - 부족. **자리에서 종**료(끝은 안 봄).

수정 standing → stood (was standing으로 채워도 판정은 그대로 -)

시범 3 — 자리도 꼴도 맞는데 선택이 틀린 경우

The scientist whom discovered the vaccine never patented it.

STEP 1 자리 discovered의 주어가 빈 → 관계사가 그 자리를 채운다. 관계사는 **있다** → 결손 아님(- 아님)

STEP 2 꼴 주어 자리인데 목적격 whom. **자리는 그대로 두고 형태만 교체** → × [격]

수정 whom → who

시범 4 — 이상 없는 경우

She kept the room warm all night.

판정 keep+O+C 형용사 자리에 warm(형용사), 성분도 딱 맞음 → ○ 정상. 고칠 것 없음.

스스로 네 시범이 네 기호를 다 보여 준다 — + 남는다 · - 모자란다 · × 꼴이 어긋난다 · ○ 이상 없다. 유형이 바뀌어도 이 두 걸음은 안 변한다.

태깅 연습 · 네 기호 중 하나를 찍어라 반복

밑줄에 + · - · ○ · × 중 하나. 성분부터, 그다음 끝

- | | |
|--|---|
| <p>1 The house <u>which</u> he lives is old. _____</p> <p>3 I know the man <u>you met</u>. _____</p> <p>5 This is all <u>what</u> matters. _____</p> | <p>2 She looked <u>nervously</u> at me. _____</p> <p>4 The <u>breaking</u> window was fixed. _____</p> <p>6 Keep the food <u>fresh</u>. _____</p> |
|--|---|

태깅 → 수정

- 7 The number of students are growing. → _____
- 8 He is the person I trust him. → _____
- 9 The doctor whom treated me was kind. → _____

합정 주의 검수

- ☐ 순서 뒤집힘 — 끝(○/×)부터 보면 자리(+/-)를 놓친다. 항상 성분부터.
- ☐ that의 두 얼굴 — 뒤가 불완전이면 관계대명사, 완전이면 접속사. 자리를 먼저 봐야 갈린다.
- ☐ -ly가 다 부사는 아니다 — friendly·lovely·costly는 형용사. 꼬리 말고 자리로.
- ☐ 없다 ≠ 틀리다 — 관계사가 아예 빠졌으면 -, 있는데 형태만 어긋났으면 ×.

- ✓ 기호 한 줄 ○ 정상 · + 과다 · - 부족 · × 꼴틀림 — 밑줄마다 하나
- ✓ 루틴 한 줄 성분 세기(+/-) → 자리 맞으면 끝(○/×) → 수정
- ✓ 기준 한 줄 남으면 + · 모자라면 - · 양은 맞고 꼴만 어긋나면 × (지우기·넣기·바꾸기는 판정을 확인하는 손동작일 뿐)

PART 1 · 자리편 (성분의 양)

CHAPTER 1-1

관계사 · + / -

what · which · that · who

관계사는 외우지 않는다.

뒤 문장의 성분을 세면 저절로 정해진다

판별 사슬 ▲ 성분 세기 + / - → 끝 보기 ○ / × → 판정 → 수정(정문)

선행사(N)가 있는가? · 뒤 절은 완전한가? · 이 단원 판정 문장 **the thing** (×) [선행사] **what I need** → **that I need**

(-) 부족 관계사가 빠짐(불완전절) (+) 과다 성분이 남음(완전절 앞 관계대명사·잉여 대명사)

(×) 선택 틀림 [선행사]·[격]·[소유격]·[전치사] (○) 정상

① 개념 · 관계사절은 "성분 세기"다 L1

관계사(who·which·that·what)는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판단은 **딱 두 가지**만 센다. 규칙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뒤에 붙는 절의 성분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세는 거야.

① 앞에 **선행사**(꾸밈 받는 명사 N)가 있나? ② 뒤 절은 **완전한가**, 성분이 **빈** 불완전인가?

the book which I read — ← read의 목적어 자리가 빈(불완전) → 그 자리를 which가 채운다

핵심은 이거야. **관계대명사는 뒤 절의 빈 성분 하나를 대신한다**. 그러니 뒤 절은 반드시 **어딘가 하나가 비어 있어야**(불완전) 정상이야.

(-) 관계사가 빠졌다

뒤 절에서 **주어·목적어가 빈**(불완전)인데 그 자리를 채울 말 **이 아예 없다**. → 관계대명사를 넣는다.

(+) 성분이 남는다

뒤 절이 이미 **완전한데** 관계대명사를 엮었거나, 같은 성분이 **두 번 있다**. → **지운다**(또는 부사인 관계부사로).

셋째 갈래 관계사가 **있고** 자리도 **맞는데** **고른 형태가 틀린** 경우가 있다. 이때는 (-)도 (+)도 아닌 (×)다 — **같은 자리에서 형 태만 바꾸기** 때문이다(④).

포인트 관계사 문제는 **뜻으로 찍지 않는다**. ① 선행사 유무 ② 뒤 절의 완전/불완전 — 이 둘을 세면 **성분이 남는지 모자라는지**가 정해지고, 그것이 기호를 정한다.

㉔ - 부족 · 빈 성분을 채울 관계사를 넣는다 L2

두 문장을 하나로 이을 때, 뒤 문장에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대명사를 빼면 그 자리가 빈다. 그 빈자리를 관계대명사가 대신 채운다.

두 문장: I know a girl. + She speaks five languages.

뒤 문장 주어 She를 빼면 → a girl who 주어 speaks five languages - 주어 결손을 who가 채움

두 문장: This is the house. + I grew up in it.

전치사 목적어 it을 빼면 → the house which I grew up in 목적어 - 목적어 결손을 which가 채움

시험이 노리는 - 는 정동사가 두 번 이어지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관계사가 통째로 빠지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둘이 되어 버린다.

(×) Materials conduct electricity poorly are called insulators.

Materials ... are called이 주절인데 conduct가 또 정동사 → 관계사가 빠졌다 -

(○) Materials that conduct electricity poorly are called insulators. that을 넣어 해결

주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래도 성분은 여전히 비어 있으니 ○ 다 — "명사 + 곧바로 S V"가 보이면 뒤 절이 불완전한지부터 확인해라. the man (whom) I met = 정상

㉔-보충 관계대명사 vs 관계부사 · 완전/불완전으로 가른다

같은 선행사라도 뒤 절이 불완전이면 관계대명사, 완전이면 관계부사(when-where-why)다. 여기서도 판단은 "성분 세기".

선행사	뒤 절	선택
the town	I visited <u>목적어</u> (불완전)	which / that
the town	I was born there (완전)	where
the day	we first met (완전)	when

관계부사는 CHAPTER 1-2에서 따로 다룬다.

불완전절 주어나 목적어 등 성분 하나가 빠진 절 · 완전절 필수 성분이 다 갖춰진 절

+

+

과다·남는 성분을 지운다

L2

+

는 관계절 안에 성분이 하나 더 있는 경우다. 모양은 둘뿐이다.

과다형 ① — 관계사가 대신할 자리를 **대명사가 먼저 차지했다**.

the man I met him ← met의 목적어를 him이 채워 절이 완전. 관계사가 들어갈 빈자리가 없다

+

수정 → the man (whom) I met him을 지운다

과다형 ② — 뒤 절이 이미 완전한데 관계대명사를 얹었다.

the house which he lives ← he lives는 성분이 다 참. 명사 노릇을 하는 which가 남는다

+

수정 → the house wherehe lives / the house in whichhe lives

왜 관계부사로 바꾸면 되나 which는 **명사** 노릇을 해서 성분을 하나 차지하지만, where·when·why는 **부사**라 성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완전절 앞이라도 자리를 다투지 않는다.

더 보기 the reason which he was absent → (O) the reason whyhe was absent

더 보기 the moment whicheverything changed → (O) the moment wheneverything changed

한 줄 정리

+

는 늘 "무엇을 지울까"로 끝난다 — 잉여 대명사를 지우거나, 성분을 차지하는 관계대명사를 성분을 차지하지 않는 관계부사로 바꿔 성분 하나를 덜어낸다.

⓪ (X) 선택 틀림 · 자리는 맞는데 고른 형태 가 틀렸다 L3

관계사가 있고 빈자리도 정확히 채웠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다. 넣을 것도 지울 것도 없고, 같은 자리에서 형태만 바꾸면 되는 경우 — 이것이 (X)다.

기준

관계절 안의 성분이 남거나 모자라면 → (+) / (-)

성분은 맞는데 선행사와의 궁합·격·전치사가 어긋나면 → (X)

태그	어긋난 것	예 → 수정
×[선행사]	선행사 종류·유무에 안 맞는 관계사	the thing what I need → that
×[격]	주격/목적격 혼동	whom led the team → who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오는 자리	people who habits changed → whose
×[전치사]	전치사 뒤 관계사 형태	the way in that → in which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선행사]다. **what**은 선행사를 스스로 품은 관계사(= the thing which)라, 앞에 선행사 N이 또 있으면 겹친다.

N what S V

the thing **what** I need ← need의 목적어는 정확히 빔(자리 OK). 그런데 what이 선행사까지 품어 the thing과 겹침 = (X) [선행사]

수정 → the thing **that** I need what을 that으로 바꾼다

(X) all **what** matters / everything **what** he owns / the letter **what** she wrote

(O) all **that** matters / everything **that**he owns / the letter **that** she wrote

(X) 사람 선행사 뒤 which — I thanked the nurse **which** treated my burn → (O) **who** (X) [선행사]

함정 what의 두 얼굴 — 선행사가 없고 뒤 절이 불안전이면 what은 정상((O)). **What** he said was true.(선행사 없음, said의 목적어 빔) "선행사가 있는가"를 먼저 세는 이유가 여기 있다.

㉠ 판별 루틴 시범 · 밑줄 하나를 2스텝으로 루틴

시범 1 — 선행사가 있는데 what

I lost the umbrella what my father gave me.

STEP 1 성분 뒤 절 **my father gave me** → gave의 직접목적어 자리가 빈(불완전). 관계사가 그 자리를 **정확히 채운다** → 성분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음

STEP 2 선택 선행사 **the umbrella**가 이미 있는데 what은 선행사를 품은 관계사 → 겹침 = × [선행사]

수정 **what** → **which / that**

시범 2 — 완전절 앞의 관계대명사

He didn't tell me the reason which he was absent.

STEP 1 성분 뒤 절 **he was absent** → 주어·보어 다 있음 = **완전**. 명사 노트를 하는 which가 남는다 → + 과다

판정 자리 문제(+)에서 종료. 선택(×)은 불 필요 없음.

수정 **which** → **why (또는 for which)**

시범 3 — 관계사가 통째로 빠졌다

The comet appears every century puzzled early astronomers.

STEP 1 성분 주절의 정동사는 **puzzled**. 그런데 appears도 정동사 → 둘을 이을 관계사가 **없다** = - 부족

수정 **appears** → **that appears (관계사를 넣는다)**

스스로 순서를 지켜라 — ㉠ 뒤 절 성분 세기 → ㉡ 성분이 맞으면 선행사·격 확인. 성분에서 걸리면 + / -로 끝, 성분이 맞는데 어색하면 ×다.

태깅 연습 · 밑줄에 기호를 찍어라 반복
A. ○ · + · × 중 무엇인가? — 선행사와 뒤 절 완전성을 세라

- | | |
|---|--|
| 1 the topic <u>which</u> we discussed _____ | 2 the reason <u>which</u> she cried _____ |
| 3 everything <u>what</u> I have _____ | 4 a friend <u>who</u> understands me _____ |
| 5 the day <u>which</u> we met _____ | 6 the nurse <u>which</u> treated my burn _____ |

B. 밑줄이 - 부족인가? 빈 성분을 채울 관계사를 써라

- 7 I still keep the letter ? she wrote to me. → _____
- 8 She is the only person ? can help us now. → _____
- 9 This is the chair ? I usually sit on. → _____ (전치사 목적어 빔)

C. 태깅 → 수정 — 기호를 찍고 정문으로

- 10 Music is the thing what brings us together. → _____
- 11 He showed me the photos I took them in Paris. → _____
- 12 Scientists respect the researcher who data changed the field. → _____

⑦ 유형 적용 · 시험은 옷만 갈아입는다 L5

같은 판별(성분 세기)이 세 가지 시험 유형으로 나온다. 루틴은 안 변한다. 시작점만 다르다.

유형 A · 어법상 어색한 것 고르기 ▶ 밑줄마다 성분 세기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 ① a song that everyone knows ② the store where I bought it ③ people who care
 ④ the book what I ordered ⑤ the year when we moved

유형 B · 옳은 것의 개수 ▶ 각 밑줄 태깅 후 셈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는? (㉠ the reason why he left / ㉡ all what I know / ㉢ a man whom I trust / ㉣ the house which he lives)

→ _____ 개 (각 항목 옆에 기호를 찍고 세라)

유형 C · 어법 수정 서술형 ▶ 태깅 → 수정형 쓰기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1 The novel what won the prize is short. → _____

2 She recalled the day which she first sang. → _____

포인트 유형이 바뀌어도 손은 똑같이 움직인다 — 선행사 세기 → 완전/불완전 세기 → 기호 판정 → 수정.

📌 오답 검수 · 제출 전 이 네 가지 L4

☐ 선행사가 있는데 **what**을 쓰지는 않았는가? **the thing what (x)** → that (x) [선행사]

☐ 뒤 절이 **완전한**데 관계대명사를 엮지는 않았는가? **the reason which he left (x)** → why (+)

☐ 관계절 안에 **같은 성분**이 두 번 있지는 않은가? **the man I met him (x)** → him 삭제 (+)

☐ 관계사는 있는데 **격·소유격**이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whom led (x)** → who (x) [격]

📌 누적 실전 · 앞 개념과 섞어 L6

1 Honesty is **what** matters most. 선행사 없음 → _____

2 the restaurant **which** we ate dinner 완전/불완전 → _____

3 students **whose** scores improved 소유격 → _____

✓ 기호 한 줄 관계사 없음 = (-) / 성분 남음 = (+) / 형태만 어긋남 = (x) [선행사]·[격]·[소유격]·[전치사]

✓ 루틴 한 줄 선행사 세기 → 완전·불완전 세기 → 판정 → 수정

✓ 함정 한 줄 what은 선행사 유무로 갈린다 — 뜻이 아니라 성분을 세라

셀프 출제 짧은 두 문장을 관계사로 이어 보고, **선행사+what** 오답을 1개 만들어 짝과 바꿔 풀어라. 정답·풀이는 **별책** CHAPTER 1-1 참조.

PART 1 · 자리편 (성분의 양)

CHAPTER 1-2

관계부사 · - / +

where·when·why · how · 전치사+관계대명사

완전하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판별 사슬 ▲ 성분 세기 + / - → 꼴 보기 ○ / × → 판정 → 수정(정문)

뒤 절의 성분이 하나 비었는가, 다 찼는가 · 판정 문장 the spot  where appears on every map → that appears

 부족 불완전절인데 관계부사(빈자리를 못 채움)  과다 완전절 앞 관계대명사(자리 없음)

 선택 틀림 [선행사] 시간에 where 등  정상

① 개념 · 관계대명사는 명사, 관계부사는 부사 L2

차이는 하나다. 관계대명사(which·that·who)는 명사라서 뒤 절의 빈 성분 하나를 차지한다. 관계부사(where·when·why)는 부사라서 성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니 뒤 절을 세기만 하면 어느 쪽인지 정해진다.

불완전절인데 관계부사

뒤 절에 주어·목적어가 비었는데 부사인 관계부사를 썼다.
부사는 그 자리를 못 채운다 → 빈 성분이 그대로 남는다.
→ 관계대명사를 넣어 채운다

완전절인데 관계대명사

뒤 절 성분이 다 찼는데 명사인 관계대명사를 썼었다 → 성분이 하나 남는다.
→ 관계부사로 바꿔 성분을 덜어낸다

같은 선행사라도 뒤 절이 가른다:

the house which he **built**  built의 목적어가 빈(불완전) → 명사인 which가 채운다 

the house wherehe **lives** he lives는 성분이 다 참(완전) → 부사인 where 

한 줄 관계대명사 = 불완전절용 · 관계부사 = 완전절용. 뒤 절 완전성이 전부다.

포인트 시험이 가장 자주 노리는 쪽은  다 — 완전해 보이지만 주어 빠진 절 앞에 where를 슬쩍 놓는다. the spot where appears ...처럼 **관계사 바로 뒤에 동사가 오면** 주어 빠진 것이니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㉔ 관계부사 3종 · 선행사가 정한다 L2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을 데려온다. 어떤 것을 쓸지는 **선행사의 종류**로 정한다.

관계부사	선행사	예 (뒤 절 완전)
where	장소 the place·city·house	the city where I live
when	시간 the day·time·year·month	the day when we met
why	이유 the reason	the reason why he left

선행사를 잘못 고르면 절이 완전해도 틀린다. July is the month **where** the streets feel alive → 절은 완전하니 관계부사 자리는 맞지만 선행사가 **시간**이다 → (×) [선행사] · **when**. 자세히는 ㉓.

㉕-보충 how 는 3종에 넣지 않는다 예외

where·when·why는 **선행사를 앞에 두고** 쓴다. 그런데 **how**는 선행사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방법을 말할 때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른다.

① how + 완전절 — 선행사 없이 단독으로 쓰는 명사절·간접의문문

Tell me **how** she solved it. "어떻게 풀었는지를" — 앞에 the way를 두지 않는다

② the way (that / in which) + 완전절 — 선행사 the way를 쓸 때

Tell me **the way** she solved it. / **the way that** she solved it / **the way in which** she solved it

둘을 겹쳐 쓰지 못한다. the way와 how는 같은 뜻을 두 번 말하는 셈이라 **하나가 남는다.**

(×) the way **how** he speaks → how를 지운다 (+)

(○) **the way** he speaks / **how** he speaks / the way **that** he speaks

㉠ - 부족 · 부사는 빈자리를 못 채운다 L3 · 최다 출제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 선행사가 장소처럼 보이면 학생은 반사적으로 where를 고르는데, 뒤 절이 불완전하면 where는 쓸 수 없다. 부사는 빈 성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호 ㉠ 관계사 바로 뒤에 동사 — 주어가 비었다는 뜻

the famous landmark where appears on every postcard appears의 주어가 빈 → where로는 못 채움

-

수정 → the famous landmark that appears on every postcard

신호 ㉠ 타동사·전치사 뒤가 비었다

a weather sensor where she had assembled assembled의 목적어가 빈 -

수정 → a weather sensor which she had assembled

더 보기 the volunteers where organized the classes → (O) who organized (주어 빈 + 사람 선행사)

더 보기 the city where I visited → (O) which/that I visited (visited의 목적어 빈)

㉡-보충 (X) [선행사] · 절은 완전한데 선행사가 안 맞을 때

뒤 절이 완전하면 관계부사 자리는 맞다. 그런데 선행사 종류와 관계부사가 어긋나면 넣을 것도 지울 것도 없이 형태만 바꾸면 된다 → (X) [선행사].

(X) Nightfall remains the time where desert animals begin hunting.

뒤 절 완전(자리 OK) · 선행사 the time은 시간 → where가 아니라 when

(O) ... the time when desert animals begin hunting.

세 갈래 구분 빈 성분을 못 채웠으면 - · 성분이 남으면 + · 성분은 맞는데 선행사 궁합이 틀리면 X.

여기서 속는다 셋 다 한 낱말을 바꿔서 고친다 — 손동작이 같으니 손으로는 못 가른다. 가르는데는 밑줄 낱말이 성분을 요구하는가다. 관계대명사는 명사라 빈자리를 채워야 하고, 관계부사는 부사라 빈자리를 못 채운다. 그래서 완전절 앞 대명사는 남고(+), 불완전절 앞 부사는 모자란다(-). 부사끼리 바뀐 경우만 성분의 양이 같아 (X) [선행사]가 된다.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관계부사 L3

관계부사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로 풀어 쓸 수 있다. 뜻과 자리는 같다. 전치사가 붙는 순간 which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므로, 뒤 절은 완전해진다.

관계부사	= 전치사 + 관계대명사
the house where he live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the day when we met	the day on which we met
the reason why he left	the reason for which he left

전치사는 원래 표현이 정한다 — live **in**, meet **on**(날짜), depend **on**, look **for**. 문장을 원래대로 풀면 어떤 전치사인지 보인다.

the chair ___ she sat → 원래: she sat **on** the chair → the chair **on which** she sat (= where)

전치사가 빠지면 **-** —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resource **which** the plan depends ← depends는 **on**을 반드시 요구 → 목적어 자리가 빈다(불완전)
수정 → the resource **on which** the plan depends 전치사를 넣는다 **-**

완전한 절인데 **which**가 남으면 **+** — 덜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the ledger **which** she recorded the sales ← recorded의 목적어가 이미 있다(완전). **which**가 남는다
수정 → the ledger **in which** she recorded the sales 장소면 **where**, 아니면 **in which**로 덜어 낸다 **+**

헷갈리기 쉬운 짝 depends는 on이 없으면 목적어를 못 받아 절이 불완전 → 전치사를 넣는 **-**. recorded the sales는 이미 완전해 in은 부가어 → **which**가 남는 **+**. 같은 in/on which 끝이어도 절이 완전한가로 갈린다.

전치사를 두 번 쓰면 **+** —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the club **to which** she belongs **to** ← belong to의 to가 앞뒤로 둘 **+**
수정 → the club **to which** she belongs 뒤 to를 지운다

주의 the topic **about which** we **discussed** ___ discuss는 타동사라 about이 필요 없고, 목적어도 비었다

(O) the topic **which** we discussed

㉔ 판별 루틴 시범 · 완전성부터 루틴

시범 1 — 불완전인데 관계부사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

The storm forced us to skip the old lighthouse, a landmark where appears on every postcard.

STEP 1 성분 관계사 바로 뒤가 동사 **appears** → 주어가 빈(불완전). 부사인 where는 그 자리를 못 채운다 = (-) 부족

수정 **where** → **that** (주어 자리를 채우는 관계대명사를 넣는다)

시범 2 — 완전절인데 관계대명사

This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STEP 1 성분 뒤 절 I was born = **완전**(수동, 빠진 성분 없음) → 명사인 which가 남는다 = (+) 과다

수정 **which** → **where (= in which)**. 원래: I was born in the city.

시범 3 — 완전한데 선행사가 안 맞는다

In this coastal town, July is the month where the streets feel most alive.

STEP 1 성분 the streets feel most alive = **완전** → 관계부사 자리는 맞다. 넣을 것도 지울 것도 없음

STEP 2 선택 선행사 the month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 → (X) [선행사]

수정 **where** → **when**

시범 4 — 이상 없음

Tell me the reason why you were late.

판정 선행사 the reason + 뒤 절 you were late(완전) + 이유의 why → (O) 정상.

스스로 손동작은 하나 — 뒤 절 성분을 세라. 비었으면 관계대명사를 넣고(-), 다 찾는데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덜어내고(+), 다 찾는데 선행사가 안 맞으면 바꾼다(X).

📹 태깅 연습 · 밑줄에 기호를 찍어라 반복

A. - · + · × · ○ 중 무엇인가? — 뒤 절 완전성부터

- | | |
|--|--|
| <p>1 the day <u>when</u> we first met _____</p> <p>3 the museum <u>where</u> displays ancient coins _____</p> <p>5 the month <u>where</u> the streets feel alive _____</p> | <p>2 the office <u>which</u> she works _____</p> <p>4 the way <u>how</u> they cook _____</p> <p>6 the harbor <u>where</u> my parents were raised _____</p> |
|--|--|

B. 빈칸에 알맞은 관계사 — 완전/불완전 표시 후

- 7 Summer is the season ? I feel most alive. → _____ (뒤 절 완전)
- 8 That's the tool ? they used _____. → _____ (목적어 빔)
- 9 the tunnel ? which the train passes. → _____ (전치사?)

C. 태깅 → 수정

- 10 This is the village which my parents grew up. → _____
- 11 She entered the fair with a sensor where she had assembled. → _____
- 12 the club to which she belongs to. → _____ (전치사 중복)

㉠ 유형 적용 · 시작점만 다르다 L5

유형 A · 어색한 것 고르기 ▶ 밑줄마다 완전성

- ① the year when I was born ② the house in which we stayed ③ the way how it works ④ the man who called me ⑤ the reason why she cried

유형 B · 옳은 것의 개수 ▶ 각 밑줄 판정

옳은 것의 개수는? (㉠ the city where I visited / ㉡ the day on which we met / ㉢ the reason why he left / ㉣ the hall where hosted the ceremony)

→ _____ 개

유형 C · 어법 수정 서술형 ▶ 태깅 → 수정형

1 2020 is the year which the pandemic began. → _____

2 the restaurant where I recommended to you. → _____ (recommend 타동사)

㉡ 오답 검수 · 제출 전 이 네 가지 L4

☐ 관계사 바로 뒤가 동사인가? 그러면 주어가 빈 것이니 관계부사는 못 쓴다. the spot where appears (x) → that appears (-)

☐ 완전절 앞에 관계대명사(which)를 쓰지는 않았는가? the house which he lives (x) → where (+)

☐ the way와 how를 함께 쓰지는 않았는가? the way how (x) (+)

☐ 선행사 종류에 맞는 관계부사인가? the month where (x) → when (x) [선행사]

✓ 기호 한 줄 불완전+관계부사 = (-) / 완전+관계대명사 = (+) / 선행사 안 맞음 = (x) [선행사] / 맞으면 (o)

✓ 루틴 한 줄 뒤 절 완전성 세기 → 비었으면 관계대명사, 다 찼으면 관계부사·전치사+관대

✓ 함정 한 줄 관계사 뒤에 곧바로 동사가 오면 주어가 빈 것이다 — 장소 선행사라도 where는 못 쓴다

PART 1 · 자리편 (성분의 양)

CHAPTER 1-3

정동사 · - / +

to-v · v-ing · p.p. 는 동사 자리를 못 채운다

절 하나에 정동사 하나. 빈 절이 있으면 -, 잇는 말이 없으면 -

판별 사슬 ▲ 성분 세기 + / - → 끝 보기 ○ / × → 판정 → 수정(정문)

정동사에 표시 → 각 정동사가 자기 절을 가졌는지 확인 · 판정 문장 I have a friend - lives abroad → who lives

- 부족 정동사가 없거나 · 정동사를 잇는 말이 없음

+ 과다 잇는 말·be가 겹침(빼야 함)

×[동사형] 준동사 골 선택

○ 정상

① 개념 · 정동사는 절마다 딱 하나 L2

정동사(수·시제를 갖는 진짜 동사)는 **절마다 하나**다. 준동사(*to-v · v-ing · p.p.*)는 동사처럼 보어도 정동사 자리를 못 채운다 — 수식·보충일 뿐.

The man *standing there* **is** my coach. standing=준동사(수식), is=정동사 ○

정동사구는 통째로 하나 — 준동사 앞에 **be · have · 법조동사**가 붙으면 그 덩어리 전체가 정동사 하나다. 앞말을 빼고 준동사만 보면 개수를 잘못 센다.

정동사구	구성	홀로 있으면
is making	be + v-ing	<i>making</i> → 준동사
was sent	be + p.p.	<i>sent</i> → 준동사
has gone	have + p.p.	<i>gone</i> → 준동사
will go	법조동사 + 원형	<i>go</i> → 원형(준동사)

have를 놓치지 마라 has gone·had left·have finished의 have/has/had는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다. 이 덩어리가 그 절의 정동사다.

포인트 긴 수식(분사구·전치사구·관계절)이 **진짜 동사를 가린다**. 수식을 걷어내고 **이 절의 정동사가 하나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㉔ 점검법 · 정동사에 표시하고 자기 절을 찾아 준다 핵심

개수를 미리 계산하지 않는다. 정동사를 하나씩 짚고, 그 정동사가 들어갈 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손으로 세 걸음이면 끝난다.

절 하나에 정동사 하나 · 정동사마다 자기 절이 있어야 한다

1정동사에 동그라미. 수·시제가 있는 동사(구)를 전부 찾는다. be·have·법조동사가 앞에 붙으면 묶어서 하나로 센다. to·v·v-ing·p.p.가 홀로 있으면 세지 않는다.

2각 정동사 앞에서 절을 이끄는 말을 찾는다. 접속사(when·because·although·if...), 관계사(who·which·that...), 의문사가 절의 왼쪽 경계다. 표시가 붙은 정동사는 자기 절을 가진 것이다 — 절 있음

3이끄는 말이 없는 정동사를 센다. 이것이 주절의 동사 후보다 — 주절

3단계 결과	판정	손동작
주절 정동사가 딱 하나	○ 정상	없음
정동사가 하나도 없는 절이 있다	- 부족	준동사를 정동사로
이끄는 말 없는 정동사가 둘 이상	- 부족	접속사·관계사를 넣는다
이끄는 말·be가 겹쳐 있다	+ 과다	겹친 말을 뺀다

왜 둘 다 -인가 기호는 성분의 양으로 정한다. 정동사가 비면 동사가 없는 것이고, 정동사 둘을 못 이으면 잇는 말이 없는 것이다 — 둘 다 있어야 할 성분이 없으므로 - . 성분이 남을 때만 + 다.

함정 콤마는 이끄는 말이 아니다. 콤마만으로 두 절을 잇지 못한다(comma splice) — The train arrived, we got on. (×)

㉠ 이끄는 말이 안 보여도 정상인 세 자리 L4

3단계에서 "이끄는 말 없는 정동사가 둘"로 보여도, 아래 셋은 **정상**이다.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애초에 **절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셋을 모르면 맞는 문장을 틀렸다고 짝는다.

①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 자리 The camera [] he **bought** online **broke** in a week. ○

bought 앞에 표시가 없지만, **명사(The camera)** 바로 뒤이고 **bought**의 목적어가 **비어** 있다 → 생략된 목적격 관계사 자리. 넣어 읽으면 which he bought.

② 등위접속사가 **절이 아니라** 구·단어를 이을 때 She **sang** and **danced** all night. ○

and 뒤에 **주어가 없다** → 절을 이은 게 아니라 동사 둘을 병렬했다. 절은 하나뿐이다.

비교 — She sang **and** he danced. and 뒤에 주어 he가 있다 → 절 둘을 이었다 ○

③ 삽입절이 끼여든 자리 The plan, **I think, needs** more work. ○

The witness **who I believe saw** the driver **has not come** forward. ○

I think-I believe는 **끼여든 말**이다. 건너내고 읽으면 절 구조가 그대로 성립한다 — The witness who saw the driver has not come forward.

확인 순서 이끄는 말 없는 정동사가 둘로 보이면, 곧장 **-**를 찍지 말고 ㉠생략 ㉡구 병렬 ㉢삽입 셋을 먼저 대 보라. 셋 다 아니면 그때 **-**다.

㉠ - 부족 · 두 얼굴 L2

㉠ 정동사가 아예 없다. 긴 주어 뒤 진짜 동사 자리에 v-ing/p.p./to-v만 있는 경우.

The letters **sent yesterday** arriving today. sent·arriving 둘 다 준동사 → 정동사 0 -

The letters sent yesterday arrived today.

㉡ 정동사는 둘인데 잇는 말이 없다. 접속사·관계사를 넣어야 하므로 역시 -.

I **have** a friend lives in Paris. 이끄는 말 없는 정동사 2 -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Paris. 관계사 who를 넣음

(×) It **rained** heavily the game was canceled.

(○) It rained heavily, **so** the game was canceled. 접속사를 넣음

㉢ + 과다 · 빼야 할 것이 있다 L3

잇는 말이나 be가 겹쳐 있어 지우면 되는 경우다. 넣는 게 아니라 빼는 동작이므로 +.

(×) **Although** the tickets sold out fast, but the band added a show.

(○) Although the tickets sold out fast, the band added a show. but 삭제 — 접속사가 이미 있다

(×) The report was submitted last week is missing two pages.

(○) The report **submitted last week** is missing two pages. was 삭제 — submitted는 수식하는 준동사

가르는 한 줄 지울 것이 보이면 +, 넣을 것이 보이면 -.

⓪ **×[동사형]** 자리는 준동사가 맞는데 **꼴** 이 틀렸다 **L4**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라는 것까지는 맞혔다. 남은 문제는 **to-v**냐 **v-ing**냐 **원형**이냐. 성분은 그대로이고 **꼴만 바꾸므로** 판정은 **×[동사형]**이다.

앞에 오는 말	준동사 꼴	예
enjoy · finish · avoid · mind give up · keep · practice	v-ing	She finished painting the fence.
want · decide · agree · refuse promise · hope · plan	to-v	They agreed to share the cost.
전치사 (to 포함)	v-ing	looking forward to meeting her
사역 let · make · have	원형	The coach let him start .
지각 see · hear · watch	원형 또는 v-ing	I saw her cross / crossing .
help	원형 또는 to-v	helped us move / to move

(×) The pianist enjoys to practice scales. → **(○)** enjoys practicing scales. **×[동사형]**

(×) Fans are looking forward to hear the album. → **(○)** to hearing 이 to는 전치사

덧 하나 · **to의 정체** look forward to · object to · be/get used to의 to는 **전치사**라 뒤에 **명사·v-ing**가 온다 (be/get used to = ~에 익숙하다). 그러나 be used to **+원형**은 **~하는 데 쓰이다**(수동+to부정사)이고, used to **+원형**은 **예전에 ~하곤 했다**다. 같은 to라도 뒤 꼴이 다르다.

포인트 자리가 틀리면 +/-, **꼴만** 틀리면 ×. 준동사 자리인 것은 맞는데 to-v/v-ing/원형을 잘못 골랐다면 성분은 멀쩡하다 —

×[동사형]이다.

② 판별 루틴 시범 · 세 걸음 그대로 루틴

시범 1 — 정동사가 없다

The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very happy.

STEP 1 동그라미 playing은 홀로 있는 v-ing → 준동사. 정동사 0개

STEP 2·3 절을 채울 정동사가 없다 → - 부족

수정 playing → were playing · 또는 문맥이 "아이들이 즐거웠다"면 The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were happy

시범 2 — 잇는 말이 없다

She felt sick she left early.

STEP 1 동그라미 felt · left → 정동사 2개

STEP 2·3 둘 다 이끄는 말이 없다. 생략·구 병렬·삽입 셋 중 어느 것도 아니다 → - 부족

수정 She felt sick, so she left early.

시범 3 — 표시가 안 보여도 정상

The letter she wrote last night arrived today.

STEP 1 동그라미 wrote · arrived → 정동사 2개

STEP 2·3 wrote 앞에 표시가 없다 → 예외 ① 확인: 명사(The letter) 바로 뒤 + wrote의 목적어가 빔 → 생략된 목적격 관계사

판정 ○ 정상 · 넣어 읽으면 The letter **which** she wrote last night

스스로 세 걸음은 세기가 아니라 **짜릿기**다 — 정동사마다 자기 절을 찾아 준다. 짝이 없는 정동사가 남으면 예외 셋을 대 보고, 그래도 남으면 -.

태깅 연습 · 밑줄에 기호를 찍어라 반복A. 밑줄이 - · + · O 중 무엇인가? — 정동사에 동그라미부터

- | | |
|---|--|
| 1 The boy sitting there <u>is</u> my son. _____ | 2 The vase broke someone <u>stepped</u> on it. _____ |
| 3 People invited to the party <u>arriving</u> soon. _____ | 4 The photo taken in Rome <u>hangs</u> here. _____ |
| 5 I called a friend <u>works</u> at a bank. _____ | 6 She smiled and <u>waved</u> at me. _____ |
| 7 The camera he <u>bought</u> online broke fast. _____ | 8 Although it rained, <u>but</u> we went out. _____ |

B. 괄호에서 고르기 — 준동사 골

- 9 She finally finished (to paint / painting) the fence. → _____
- 10 They agreed (to share / sharing) the cost. → _____
- 11 He is looking forward to (meet / meeting) her. → _____
- 12 The coach let the rookie (to start / start) the final. → _____

C. 태깅 → 수정

- 13 The workers repairing the road finishing at noon. → _____
- 14 It rained heavily the game was canceled. → _____
- 15 Anyone wanting a ticket should line up now. → _____ (수식? 정동사?)
- 16 The report was submitted last week is missing pages. → _____

㉠ 유형 적용 · 시작점만 다르다 L5

유형 A · 어색한 것 고르기 ▶ 밑줄마다 정동사 짚기

① The tree planted last year grew fast. ② A man standing at the door waved to us. ③ The cake baked today smelling great. ④ We ran when it started to rain. ⑤ Books left on the desk are mine.

유형 B · 옳은 것의 개수 ▶ 각 밑줄 판정

옳은 것의 개수는? (㉠ The dog barking loudly scared us / ㉡ I met a girl speaks French / ㉢ The door was open we went in / ㉣ Tired, he slept)

→ _____ 개

유형 C · 어법 수정 서술형 ▶ 태깅 → 수정형

1 The tower built in 1900 attracting many tourists every year. → _____

2 The phone rang I picked it up. → _____

㉡ 오답 검수 · 제출 전 이 네 가지 L4

☐ 이 절에 정동사가 하나 있는가? 준동사만 두고 빠뜨리지 않았는가? The letters arriving today (x) → arrived

☐ 이끄는 말 없는 정동사가 둘은 아닌가? I have a friend lives here (x) → who lives

☐ 둘로 보인다면 생략·구 병렬·삽입 셋을 대 보았는가? The camera he bought online broke (O)

☐ 준동사 자리라면 꼴이 맞는가? enjoys to practice (x) → practicing (x) [동사형]

✓ 기호 한 줄 정동사 없음·잇는 말 없음 = (-) / 겹쳐서 빼야 함 = (+) / 꼴만 틀림 = (x) [동사형] / 맞으면 (O)

✓ 루틴 한 줄 정동사에 동그라미 → 각자 자기 절 찾아 주기 → 짝 없는 정동사가 남으면 예외 셋 확인 → 판정

✓ 함정 한 줄 has gone의 has도 정동사구의 일부 ·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다 ·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

PART 1 · 자리편 (성분의 양)

CHAPTER 1-4

명사절 · + / -

that·what·whether/if·의문사

명사절도 결국 뒤 절의 성분. 완전하면 that, 빠지면 what

판별 사슬 ▲ 성분 세기 + / - → 골-어순 ○ / × → 판정 → 수정(정문)

명사절 뒤가 완전한가? 완전이면 that, 불완전이면 what · 판정 문장 I know (+) what he is honest → that

(+) 과다 완전한 절에 what(성분이 남음) (-) 부족 불완전한 절에 that(성분이 빔) ×[어순] 간접의문문 어순 ○ 정상

① 개념 · 명사절은 문장 속 명사 덩어리 L2

명사절은 주어·목적어·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이다. 이끄는 말은 that·what·whether/if·의문사. 무엇을 쓸지는 (또!) 뒤 절의 완전성으로 갈린다.

I believe that he is honest. 완전 → that(접속사, 성분 안 뺌) ○

I believe whathe said _____. said의 목적어 빔(불완전) → what(성분 겸함) ○

that과 what의 갈림 — that은 완전한 절을 이끌고(빠진 성분 없음), what은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자기가 한 성분 노릇). 뒤가 완전한데 what을 쓰면 성분이 하나 남으므로 (+), 불완전한데 that을 쓰면 성분이 비므로 (-).

1-1과의 갈림길은 선행사 앞에 꾸밈 받을 명사(선행사)가 있으면 명사절이 아니라 관계사 자리다(1-1). 선행사가 있는데 what을 쓴 것은 관계사 선택 오류이므로 ×[선행사]로 판정한다 — the idea what he had → that/which. 선행사가 없을 때만 이 장의 + / -를 적용한다.

포인트 명사절도 성분 세기다. that/what을 뜻으로 고르지 말고 뒤 절이 완전한지부터 확인하라.